

# 현안과 과제

■ 우리나라 지역별 경기순환의 특징과 시사점

# 목 차

---

## ■ 우리나라 지역별 경기순환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지역별 경기변동의 특징 .....	3
3. 시사점 .....	7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오 준 범 연 구 원 (2072-6247, jboh19@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우리나라 지역별 경기순환의 특징과 시사점

#### ■ 개요

경기순환주기는 경기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별로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경제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경기순환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기순환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순환과 지역별 경기순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 지역별 경기변동의 특징

**(경기순환주기)** 2000년 이후 전국 기준과 각 지역은 2~3번의 경기순환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각기 다른 경기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울산, 전남은 2015년 중 경기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지역들은 경기 수축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순환의 지속성)** 전국 기준으로 경기확장기가 수축기에 비해 다소 길고, 지역별로는 크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2000년 이후 평균 경기확장기는 36.0개월, 평균 경기수축기는 34.7개월로 경기확장기가 1.3개월 더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을 비롯한 대전, 전남, 경남 등은 경기수축기간이 경기확장기간보다 길었다. 반면 대구, 인천, 충남, 전북 등의 경우 경기확장기간이 경기수축기간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순환의 변동성)** 경기순환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경기순환 변동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전국 기준 경기순환 변동성보다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광주와 제주 지역의 경기순환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산, 울산, 전라남도 등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으며,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전국 기준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였다.

**(경기순환의 연관성)** 전국과 각 지역별 경기순환의 상호연관성을 통해 경기순환의 동행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전국 기준과 높은 연관성을 보인 지역은 대구, 인천, 경기도, 충남, 전북, 경북 등이었다, 반면 제주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울산, 강원도, 광주, 전남 등은 낮은 연관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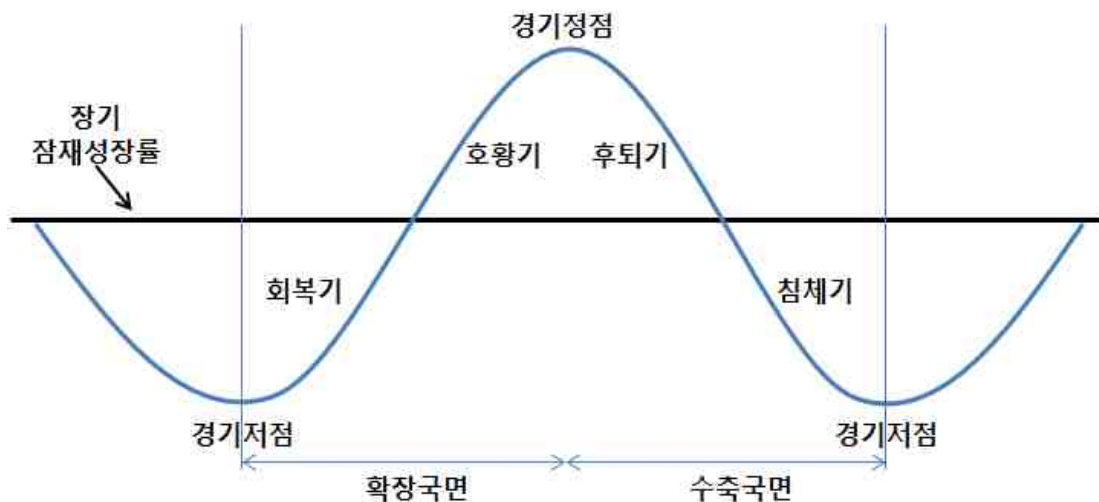
#### ■ 시사점

우리나라 지역별 경기변동이 크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과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업 활동 시 지역별 경기변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기순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 시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순환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기순환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은 특정 지역경제에 투자를 하거나 지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기순환주기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지역별 경기순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 1. 개요

- 경기순환주기는 경기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지역별로 경제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경기순환은 더욱 중요
- (경기순환의 개념) 경기순환은 경기저점을 기준으로 다음에 발생하는 경기저점까지의 순환을 의미하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로 구분
  - 경기순환은 경기저점에서 경기정점까지를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경기저점까지를 수축국면으로 정의함
  - 구체적으로 확장국면 중 회복기는 투자, 소비 심리 회복, 호황기에는 투자, 생산, 소비가 실제로 증가하고 수축국면의 후퇴기에는 소비는 감소, 재고가 증가하며 침체기는 불황기를 의미함
- (지역별 경기순환) 지역별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어 지역별 경기순환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
  -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로 경기순환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임을 암시함
  - 예를 들어 2014년 서울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로 전국 평균인 59.9%를 크게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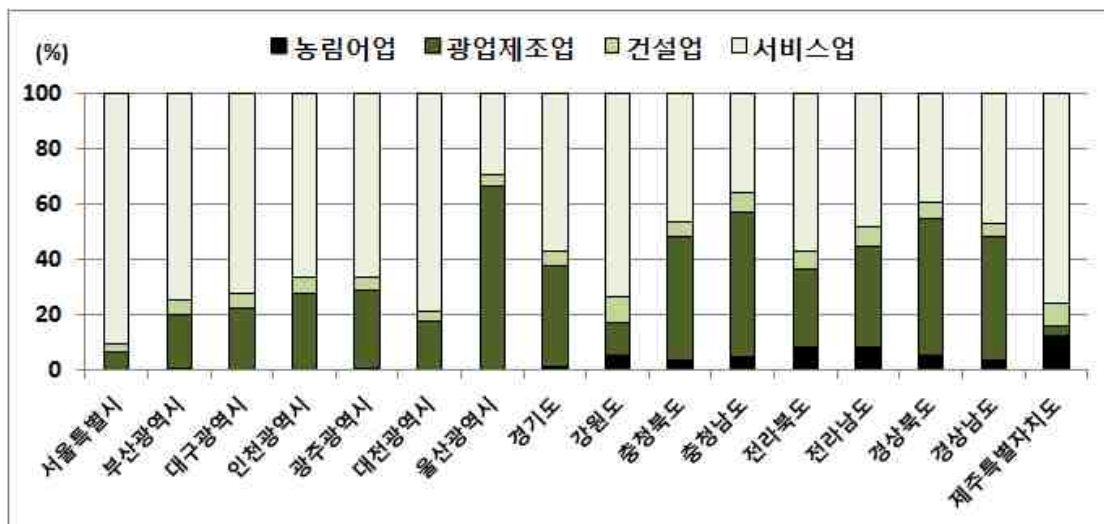
< 경기순환주기의 개념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지역별 경제정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방자치체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고유의 경제정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별 경제의 특성과 경기순환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때 지역별 경기순환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지역별 경기순환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짐
  
-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기순환을 추출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순환과 지역별 경기순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생산·소비·GDP 등 주요 경기지표 등을 검토하여 경기순환주기를 설정함
  - 본 보고서에서는 통계청의 방법론과는 달리 지역별 산업생산 데이터와 호드릭-프레스콧 필터(Hodrick - Prescott Filter)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기순환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국의 경기순환과 비교하고자 함
  - 지역별 경기순환주기는 지역별 산업생산만을 이용하여 추출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경기순환과 단순 비교는 불가능함
  - 그러나 지역별 경기순환주기의 변동성, 지속성 등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지역별 산업구조 >



자료 : 통계청.  
 주 : 2014년 지역 내 총부가가치 기준.

## 2. 지역별 경기변동의 특징

- (경기순환주기) 2000년 이후 전국 기준과 각 지역은 2~3번의 경기순환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서울, 울산, 전남은 경기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음
  - 전국 기준 경기순환주기는 2000년 이후 최초로 나타난 저점을 기준으로 2번의 경기순환을 거쳐 3순환기를 진행 중
    - 전국 기준으로 2003년 5월~2009년 3월, 2009년 3월~2015년 4월까지의 두 차례의 경기순환을 지난 후 3순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각기 다른 경기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각기 2~3번의 경기순환을 지나고 있는 모습
    -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는 전국 기준과 같이 두 차례의 경기순환을 거침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는 두 차례 경기순환 이후에 경기저점에 한번 더 도달함
    - 반면 나머지 지역은 한 차례 경기순환을 거친 이후 아직 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지역별 경기순환주기 >

	정점	저점	정점	저점	정점	저점	정점
전국	2000.08	2003.05	2007.01	2009.03	2011.07	2015.04	-
서울	2000.09	2005.03	2007.05	2009.09	2012.02	2015.03	-
부산	2002.04	2004.12	2007.10	2009.09	2011.06	2013.07	2015.06
대구	2000.07	2002.12	2007.02	2009.04	2011.05	2013.04	2014.03
인천	2000.08	2004.08	2007.05	2009.06	2013.08	-	-
광주	2000.12	2003.12	2006.10	2009.01	2011.03	2013.02	2014.11
대전	2001.07	2005.03	2007.02	2009.03	2011.09	2013.11	2015.11
울산	2000.05	2002.01	2004.12	2009.07	2012.08	2015.10	-
경기	2000.07	2003.07	2006.08	2009.03	2011.04	-	-
강원	2003.05	2005.07	2007.06	2009.06	2011.11	-	-
충북	2000.07	2005.07	2007.05	2009.03	2013.10	-	-
충남	2000.05	2002.09	2006.05	2008.10	2010.11	-	-
전북	2000.04	2002.07	2007.01	2009.03	2011.07	-	-
전남	2000.11	2002.07	2004.05	2009.03	2011.12	2014.06	-
경북	2000.07	2002.11	2004.08	2006.03	2007.11	2009.08	2012.02
경남	2001.06	2005.04	2007.04	2009.04	2011.06	-	-
제주	2003.03	2006.01	2009.08	2013.04	2015.03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1) 2016년 5월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함.

2) 음영은 경기가 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나타냄.

○ (경기순환의 지속성) 2000년 이후 지역별 경기순환의 지속성은 전국 기준으로 확장기가 수축기에 비해 다소 길고, 지역별로는 크게 상이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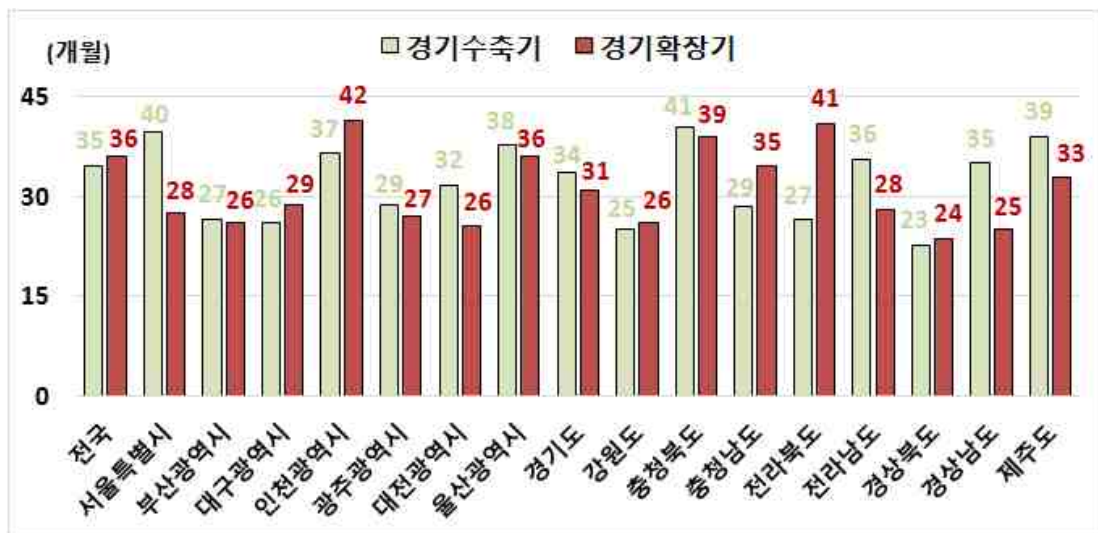
- 전국 기준 경기순환주기에서 경기확장기의 평균지속기간은 경기수축기보다 다소 긴 모습

- 전국 기준 평균 경기확장기는 36.0개월로 평균 경기수축기 34.7개월에 비해 1.3개월 길었음
- 전국 기준 평균 경기순환주기는 70.7개월로 공식적인 통계청 발표치인 49개월보다 다소 길게 추정됨<sup>1)</sup>

- 지역별로는 각기 다른 경기순환기의 지속기간을 보이고 있는데, 10개 지역에서 경기수축기가, 6개 지역에서는 경기확장기가 더 오래 지속

-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은 경기수축기가 경기확장기에 비해 지속기간이 긴 것으로 파악됨
- 반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의 경우 경기확장기가 경기수축기에 비해 지속기간이 길었음
- 평균 경기수축기와 경기확장기의 차이가 심한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으로 차이는 10개월 이상이었음

< 2000년 이후 지역별 경기순환국면 평균지속기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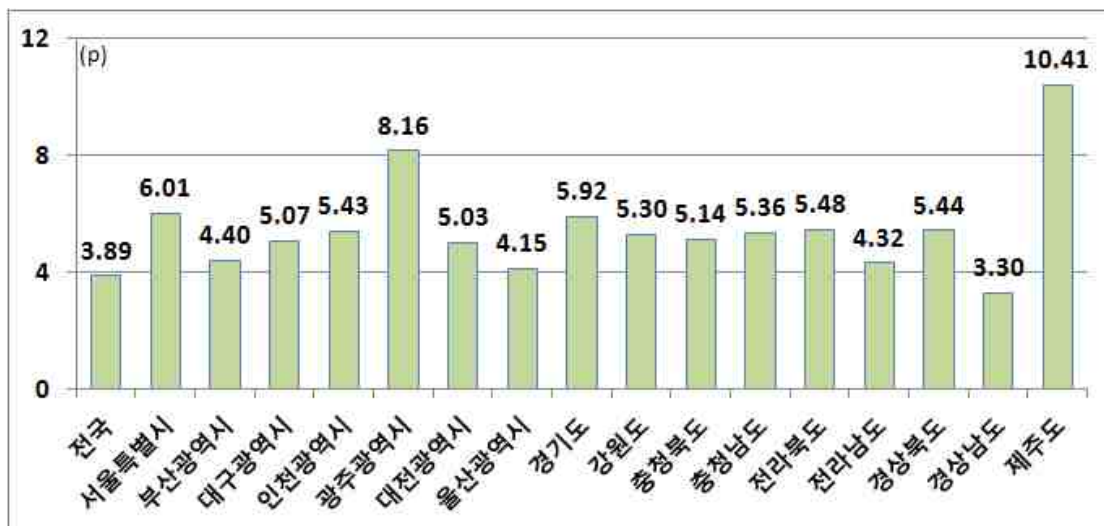
주 : 전국 경기순환의 변동성은 전국 산업생산에서 도출된 것으로 각 지역 변동성의 평균을 의미하지 않음.

1) 산업생산을 기반으로 경기순환을 추정할 경우 경기순환주기가 통계청의 공식 경기순환주기보다 다소 길어지는 점은 조기현(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특징임.

○ (경기순환의 변동성) 2000년 이후 경기순환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기순환 변동성은 지역별로 광주, 제주가 변동성이 큰 반면, 경상남도가 낮은 변동성을 기록

-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순환 변동성은 전국 기준 경기순환 변동성보다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광주와 제주 지역의 경기순환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
  - 지역별 경기순환의 변동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인 지역은 제주 특별자치구(10.41p)였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광역시(8.16p)였음
  - 그밖에도 서울특별시(6.01p), 경기도(5.92p), 전라북도(5.48p), 인천광역시(5.43p)도 전국의 경기변동(3.89p)에 비해 다소 높은 변동성을 보임
  - 경기순환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지역경기가 장기적인 추세로 부터 크게 움직여서 안정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부산, 울산, 전라남도 등은 전국과 비슷한 변동성을 보였으며,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전국보다 낮은 변동성을 기록
  - 전국 기준의 경기순환과 비슷한 변동성을 보인 지역은 부산광역시(4.40p), 울산광역시(4.15p), 전라남도(4.32p) 등임
  - 한편 경상남도의 변동성은 3.30p를 기록하여 전 지역 중 가장 낮은 모습을 보임

< 2000년 이후 지역별 경기순환의 변동성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경기순환의 변동성은 시계열의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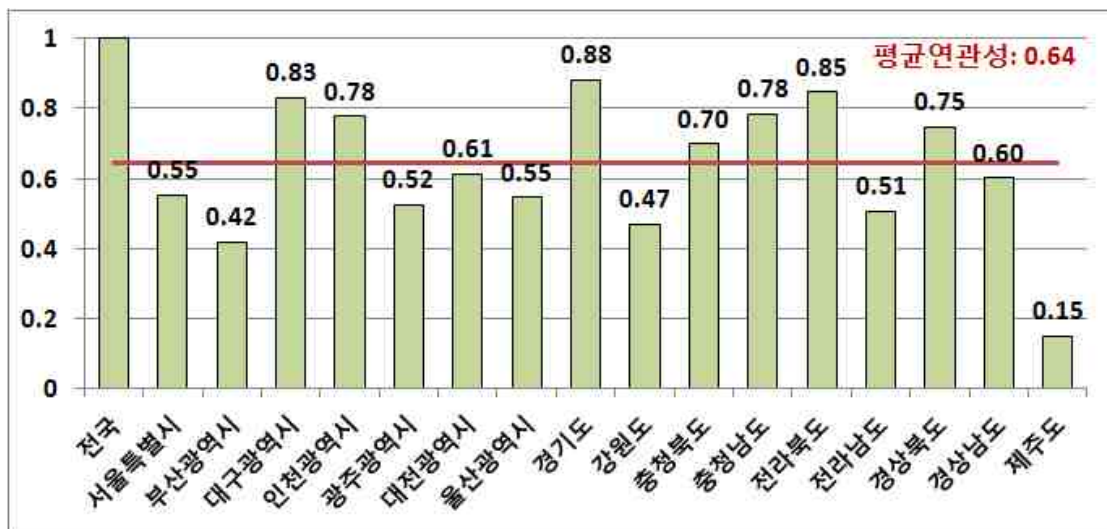
2) 전국 경기순환의 변동성은 전국 산업생산에서 도출된 것으로 각 지역 변동성의 평균을 의미하지 않음.



○ (경기순환의 연관성) 2000년 이후 전국의 경기순환과 각 지역 경기순환의 상호연관성은 대구, 인천, 경기도 등이 높고, 서울, 부산 등이 낮은 연관성을 기록

- 전국 기준의 경기순환과 높은 경기순환 연관성을 지니는 지역은 대구, 인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임
  - 전국 기준의 경기순환과 가장 높은 경기순환 연관성을 지니는 지역은 경기도로 상관계수가 0.88에 달함
  - 경기도 다음으로는 전라북도(0.85), 대구광역시(0.83), 충청남도(0.78) 등의 순서로 전국의 경기순환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임
- 반면 제주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울산, 강원도, 광주, 전라남도 등은 전국의 경기순환과 낮은 연관성을 보였음
  - 전국 기준의 경기순환과 가장 낮은 경기순환 연관성을 지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구로 상관계수가 0.15에 그침
  - 이 밖에 부산광역시(0.42), 강원도(0.47), 광주광역시(0.52), 서울특별시(0.55), 울산광역시(0.55) 등의 순서로 전국의 경기순환과 연관성이 낮음
  - 전국 기준의 경기순환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으로의 기업의 신규 투자가 시행될 경우 예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2000년 이후 전국과 지역별 경기순환의 연관성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경기순환의 연관성은 시계열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 3. 시사점

- 우리나라 지역별 경기변동이 크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의 경제 정책 시행과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업 활동 시 지역별 경기변동에 대한 고려 필요

첫째, 경기순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 시행 시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순환뿐만 아니라 지역별 경기순환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지역별 경기순환주기 추정에서 지역별로 경기순환의 주기와 변동성, 연관성 측면에서 크게 상이함
- 정부가 전국적인 경기순환만을 고려하여 경기 안정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부의 정책이 지역별로는 지역 경기순환의 안정화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경기순환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별 경제정책에 대한 공조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업은 특정 지역경제에 투자를 하거나 지역 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기순환주기에 주목해야 한다.

- 기업의 특정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의 경기순환주기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특정 산업과 산업의 전후방 산업에 대한 경기순환주기 추정을 통해 현 경기 국면을 파악하고 시장수요를 예측·활용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역별 경기순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 현재 지역별 경기변동에 대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서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동일한 기준으로 추정한 지역별 경기순환주기를 통한 지역별 경기순환의 선후관계, 연관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확대가 필요함
- 지역 간 경기순환주기에 대한 연구는 정부 정책 혹은 기업 투자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HRI**

오 준 범 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